

아름다운 Tulip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질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개역, 이사야 55:1~13]

옛날 살기 힘든 시절에 행실이 좋지 못해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과부가 있다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요즘은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과부에게 수 많은 자녀와 최고의 남편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예쁘게 수놓아진 집과 안전한 성읍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징벌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버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4장까지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합니다. 55장에 들어오면 또 하나 더 추가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3절 중간쯤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언약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살 소망이 없던 그에게 수 많은 자녀와 멋진 남편과 멋진 성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튼튼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주변의 여러 나라에게 침입을 당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던 시대를 지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튼튼한 나라를 세워주고 그 왕위가 변함없이 이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튼튼한 나라를 이제 세우겠노라, 이제 회복시키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5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 위에 우뚝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했지만 실제로 다윗의 나라가 영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변의 여러 나라에 비하면 이 왕위가 오래도록 유지되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도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영원한 나라는 후일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시대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분이 만민의 지도자가 되며 명령자가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때가 되면 네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곧 달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하여진 이 복음이 유대인 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

에게도 퍼져나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본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때 그렇게 비참했던 과부가 누구입니까?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차적으로는 후일에, 온 세상의 부귀를 다 누리게 되는 이 여인이 오늘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리는 온갖 부귀가 우리 것이라니 좋긴한데 그럼 우리가 언제 버림받은 과부요 남편도 없는 그런 처량한 삶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처량한 모습이었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던 과부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계획을 잘 표현한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모으면 아름다운 꽃 튜립(Tulip)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튜립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하죠.

첫 글자 ‘T’는 *Total depravity*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전적부패’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해 버렸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찾아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십니까? 1절에 **‘목마른 자들아 오라’**고 합니다. 목은 마른데 돈도 없고 값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부릅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뭔가 노력은 안하겠습니까? 2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노력합니다. 먹을 것이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양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게 배부르게 할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능력한 자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배부르게 할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력으로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무능력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복되다고 하셨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선포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부자가 복이지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입니까? 여러분이 다 부요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가난한 자를 찾으십니다.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병든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마태복음 9:12-13)고 하셨습니다. 의인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죄인이 들을 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가도 돈이 없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돈 없으면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되어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장기려 박사님이 재미난 일화를 참 많이 남겼습니다. 어느 환자가 병은 나았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이 돈 없는 환자를 몰래 도망치게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환자를 도망가도록 길 안내해 주는 그 의사를 이 환자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능력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가 '돈 없는 자, 값없는 자도 오라.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주의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부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원리가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이 따라오게 됩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튜립의 두 번째 글자 'U'입니다. *Unconditional*,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능력 없는 자를 불러서 조건을 달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 없는 자를 불러서 조건을 내걸면 전부 그냥 돌아가야 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는 것은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노숙자에게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데가 더러 있죠? 공짜입니까, 돈 받으니까? 공짜로 주는 데가 많은데 어디서는 값을 받았답니다. 100원 내래요. 왜 100원을 받았을까요? 거저먹는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 100원이라도 내고 한 끼씩 줬답니다. 100원도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주는 거죠. 거저 와서 먹는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 100원을 내고 밥을 먹게 했는데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게 몇 억이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한 우리를 불러서 '얻어 먹으라'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값 없이 와서 '사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값도 없고 돈도 없는데 와서 주는 것 그냥 먹으면서도 하시는 말씀은 '사라'고 그립니다. 누굴 생각해서요? 없는 사람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0원 내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그게 100원짜리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게 왜 100원입니까? 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값을 냈기 때문에 그게 100원이지 결단코 값어치가 100원짜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발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출석 하지 않았느냐 내 공로 아니냐고요? 어렵도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100원짜리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혹 정신없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지요. 한 끼에 100원 내고 밥 한 그릇 얻어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돈 내고 사먹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 있으면 나쁜 놈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값 없이 사라고 합니다. 이 포도주와 젖은 질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100원 내는 것도 아니고 값도 없이 그냥 주는 거니까 이게 질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최상의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낼 능력이 없어서 못 내지만 우리 대신 누군가가 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의 고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분이 값을 대신 다 지불했기 때문에 거저라는 거저 질이 나쁜거나 시원찮아서 거저가 아닙니다. 무료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똑마른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갈증만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배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기가 막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2절 중간부터 볼까요? '그리하여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쁨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뭐 하러 왔었죠? 물 먹으러 왔습니다. 물 먹으러 왔는데 영혼이 삽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놀라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냥 물 한 모금 마시러 왔더니 영혼을 살려 놓으신 일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밥 안 먹으려는 아이에게 자꾸 밥 먹으라고 하면 버릇이 나빠집니다. 밥 먹어주는 게 인심 쓰는 겁니다. 사정사정하는 엄마에게 큰 인심 한번 씁니다. '좋다 먹어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얼마나 싱거운 자랑, 부끄러운 자랑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떤 잘난 점, 잘하는 점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튜립의 세 번째 글자가 'L'입니다. *Limited Atonement*, 제한적 구속입니다. 무능력자를 조건 없이 부르셔서

구원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다 부르시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동사를 조심해서 보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동사만 골라서 본다면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나아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요청하고 찾을 때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아니 만날만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열려 있을 때는 얼마든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지만 일단 문이 닫히면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사하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목구멍으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을 비유컨대 믿음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말을 써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죽을병이 걸린 사람이 억지로 억지로 약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내가 그 약을 삼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나? 그것도 자랑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믿지 않았느냐?'고 말한다면 이건 마치 약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그거 삼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느냐고 자랑하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찾는 자,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거부할 자가 없습니다. 튜립의 네 번째 글자가 'I'입니다. *Irresistible Grace* 우리말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거부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참 능력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거부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거기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주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면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쏟아지는 비를 어떻게 피합니까? 비 사이로 막 가면 되지 않습니까? 못피한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의 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재앙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 없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쏟아 부었으니 결국은 튜립의 마지막 글자 'P' *Perseverance of Saints* 우리는 흔히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만 성도의 인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것을 궁극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평안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때 만물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박수치며 맞이합니다.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

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짙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도는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결단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반드시 참고 인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견인이란 말은 저도 예전에는 자동차 끌고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동차 견인해 가듯이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은혜스럽더라구요. 나중에 한자를 찾아보니까 좀 달라요. 굳게 잡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도가 비록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단코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낚거나 열심히 더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거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도 이때까지 노력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 모두 다 합쳐서 100원입니다. 그 모든 것 다 합쳐서 목구멍으로 약 삼킨 노력입니다. 병은 약이 고쳤습니다. 그 약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약 털어내고 물 삼킨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게 자랑할 요인이 못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목표가 어딘지 13절을 보세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짙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화석류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나는 아주 좋은 나무죠. 이 푸른 나무가 짙레를 대신하여 날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인도하시면 그 날에는 가시나무도 짙레도 사라지고 잣나무와 화석류가 등장하여 박수치며 환호하며 맞이한다고 말합니다. 범죄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 능력이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임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엄청난 은혜라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칼빈주의의 5대교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로서는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왜 이해할 수 없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차원이 높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찌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길로 알고 아멘 하시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뇨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뇨(로마서 11:34-35)'라고 말합니다. 그럴 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버림받아서 어떻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이 늙은 과부에게 정말 꿈같은 날이 온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일차적으로는 포로에서 놓여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차적으로는 훗날 이 땅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라도 어떻게 해 볼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마치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우리를 치료비를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몰래 치료 다 해주고 나중에 생활비까지 다 대어준 꼴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퇴원 못하고 있는 환자를 병원 뒷문으로 안내해서 도망가게 해 준 그 의사가 여러분의 의사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 분이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빚을 갚아야겠다고 그 의사를 찾아 그 병원을 갔더니 자기

를 도망시켜 준 그 의사가 치료비를 대신 다 갚았더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큰 은혜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게 그런가보다 싶은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감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 놓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칼빈의 5대 교리를 간단하게 줄여서 틀림이라고 합시다라는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요약한 말인지를 기억하시면서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일들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감격합니다.